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Ⅱ ~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신앙 ~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 머리말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의해 팬데믹의 종식을 기원하면서 감염방지와 사회 생활의 양립을 모색하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숙 생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준비했던 생활의 리듬이 대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정적으로 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보람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신자 여러분들은 미사중지 사태에 망설이면서도 각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로나의 재난에 의한 현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교황 프란치스코 2019 방일 테마)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그 근본을 바라보고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느님과 고요히 대화하기

우리들은 매일의 일들을 성실하게 다하면서도 되풀이되는 일상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에 스스로 마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재난에 처하더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시 62:2-3).

침묵에 대해서 마더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느님을 찾아내려 하지만, 하느님은 소음이나 침착성이 없는 곳에는 드러내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고요함의 벗이다.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있다.」 신앙을 깊게 하는 한 걸음은, 스스로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삶의 태도로 괜찮은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물어 봅시다.

「하느님, 저를 살펴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 (시 139:23-24).

2.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작년 3 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펜데믹으로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실 때 제자들에게 질책하셨던 말씀「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코 4:40)을 묵상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농락되어 버립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오실때의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마태오 14:28)라고 청합니다. 이 때 베드로는 주님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순간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져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코로나 재난으로 패닉이 되고, 주님으로 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구원의 힘을 믿으며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사실 물 위를 걷는 것 처럼 놀랄만한 일상의 기적입니다. 코로나 재난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시 37:5). 우리들은 주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3.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묻는다.

2011 년 3 월 11 일,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올해 10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괴로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태풍·호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자연재해 라고는 하지만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체험을 한다면 누구나가 운명이라고만 볼 수 없는 부조리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어집니다. 이 코로나 재난도,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것 처럼 인류역사의 큰 전환기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인류를 습격하는 무서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느님은 왜 그러한 것을 허락하는 것인가? 라고 누구나가 의문을 갖을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아온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서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시작한 구원의 역사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있고, 하느님의 계획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이 겪은 수많은 고난들은 하느님이 백성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어 하느님을 진심으로 바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라지의 비유」(참조 마태 13:24~30)을 말씀하시며, 아무도 하느님의 계획 전모를 마지막까지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가령 부조리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드러나지 않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재난의 의미를 안이하게 결론짓는 것은 금물입니다만, 이 시대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의미를 신앙의 눈으로 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폭풍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눈을 뜨고 중요한 것을 알아 차리라고.

4.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다.

베네딕토 16 세 교황님은 고난은 인생의 일부이며 하느님만이 고난의 근원인 악과 죄의 힘을 제거하고, 치유를 주시는 희망을 만드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피해를 입은 7 살의 에레나라고 하는 소녀에게서 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라는 질문 받았을때, 나도 잘 모르지만 다음의 3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가령 대답을 찾지 못하고 슬픔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언젠가 이 고난이 허무하고 쓸데없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고난의 저편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바오로는 생애에 참기 어려울 만큼의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고난을 살고, 고난속에서 하느님으로부터의 위로를 찾아낸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난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참조Ⅱ고린토 1:3-4). 왜냐하면 고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재난에 있어서도 인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통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서로의 기도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며 이 고난을 견디어내는 힘(참조Ⅱ고린토 1:6)을 받으시다.

5. 받는 성사 보다 살아가는 성사로

미사 중지라는 시련의 시기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성체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의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I 코린토 11:24)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4-15)라고 명하셨습니다.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첫번째 명령은 전례와 관련이 있고,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는 두 번째 명령은 사랑의 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하루에 2 번 성체성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아침의 미사에서, 두번째는 하루 중 만나는 사람들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마더데레사는 이웃사랑의 실천과 성체성사가 단단히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전례, 특히 미사(성찬의 전례)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이 원천과 정점의 중간을 사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사의 은혜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250 년간 잠복한 키리시탄은 7 개의 성사 가운데 세례이외의 성사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의해 박해속에서 신앙을 훌륭하게 이어왔습니다. 미사 중지라는 경험을 통해서 신자가 교회에 모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활동과 함께 하느님과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은 희망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게 하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속에서의 「야전병원」이라는 교회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은 미래에 희망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의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희망하며, 오늘을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완전한 종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믿으며, 희망의 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괴로움의 의미를 곧바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 자신이 하느님에게 물으면서 시간을 들여서 괴로움의 의의를 찾아내 가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시작된 시점에서 혹은 괴로움이 한창일 때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느님의 위로와 살아갈 힘이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극복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강해져 갑니다.

희망의 덕은 인간의 행동에 활기를 주는 다양한 희망을 흡수하고 실망으로부터 지겨우며, 내버려진 상태에서 우리들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요한 15:4)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요한 15:11).

그러므로 바오로는 자신의 고난의 체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I 데사로니카 5:16-18)라고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의한 기쁨은 고난이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로 안도하는 기쁨입니다. 코로나 재난을 두려워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에게서 약속받은, 고난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일깨우고 살아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7. 하느님 뜻에 맞는 슬픔

바오로는 두 개의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II코린트 7:10) 슬픔이나 고통의 체험으로부터 인간이 회심에 이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로부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느님 뜻에 맞는 슬픔이며, 구원의 기쁨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만을 말한다면 고난은 고난인 채로 끝나고, 인간을 출구가 없는 괴로움으로 내몰며, 일생에 후회를 남기는 슬픔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 역시 하느님의 시점에서 보면 반드시 미지의 축복의 출입구가 되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바오로는 거듭되는 고난을 만나도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II코린트 4:8-9)라고 말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히브리서 12:11)

8. 새로운 생활 양식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각의 기본은 「모든 것은 연결된다.」라는 시점입니다. 이 코로나 재난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교황이 요구하는 생태적 전환을 심화시키고, 생활 방식과 일상적인 행동을 검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도록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합니다. 교황님은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부터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은총을 깊게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라고.」 새로운 생활 양식(뉴-노멀)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단지 감염을 예방하는 생활이 아니고, 보다

검소하게 인간답게 사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시간, 식사, 의복, 주거, 여가등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쳤습니다 (마태 6:32~34 참조). 사치를 하지 않고, 낭비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9. 희망과 신앙과 사랑의 항체를 가진다.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의미, 삶의 목적, 세계 역사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그들의 희망의 근원이 세상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앙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복음화하는 노력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악과 죽음에서 해방 시키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다양한 사회적 도전을 극복합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코로나 감염으로 모든 인류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하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한사람 한사람이 중요하고 대체 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초대되어 서로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 위에 우리들은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 8:28) 함께 살아가는 지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제는 인류 전체가 하나가 되고, 지속가능하게 전인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교황님께서서는「희망과 신앙과 사랑의 항체」를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호소하십니다.

10. 정의와 사랑과 연대의 필수적인 항체

감염원이라고 하는 발상으로부터 감염자를 범인 찾기와 같이 특정하고 싶어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편견이나 차별이 퍼지는 위험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무엇 보다도 사회속에서의 연대와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팬더믹 이전으로 회복하기보다는, 그 어느때 보다 더 인류가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주님께서 받으신 수난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 자매들의 수난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계각지의 난민들처럼 이전부터 버려진

상태로 긴급사태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곤란하고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항체를, 「정의와 사랑과 연대의 필수적인 항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자기의 일처럼 괴로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자숙중에 서로 돕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국민만의 안전이나 안심에만 구애되는 에고이즘(egoism)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아 고통을 나누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영성은, 함께 사는 삶입니다.

11. 사랑의 불꽃을 타 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재난에 있어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피하기 위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전인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개개인의 신앙을 깊게 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디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Ⅱ디모테오 1:6-7). 나의 구원과 모든 인류의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로마 14:17-19). 이를 위해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12. 슬퍼하는 사람들의 위로자이신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괴로움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과 같이, 성모 마리아도 그 생애를 통해서 괴로움과 아픔을 안고 하느님의 구원의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질릴 것 입니다.」라고 말하는

시메온의 예언이 실현된 것 이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성모 마리아을 향해 우리들의 바람을 전해봅시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온 세상이 괴로움과 불안으로 습격 당하고 있는 이 가혹한 날들 가운데, 당신의 보호를 청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위로자이신 성모 마리아, 괴로워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부둥켜 안아 주소서.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뻗어 주시어, 이 무서운 감염증의 대유행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소서. 아멘」.

2021 년 1 월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바오로 오오츠카(大塚) 요시나오(喜直)